

함수, 농약성분 검출 안됐다!

전라남도는 일부 언론의 염전 농약 사용 보도와 관련해 실시한 함수(鹹水: 소금으로 만들어지기 직전의 소금물)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 결과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9월5일 발표했다.



전라남도는 염전 25곳의 소금에 이어 함수까지 시료를 채취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농약성분에 대한 시험분석을 의뢰했으며 검사결과 단 1종의 농약성분도 나오지 않았다.

함수는 바닷물을 증발·농축시킨 천일염의 원료인 소금물로, 전라남도는 소금에 대한 잔류농약 불검출에 이어 잔류농약 성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김한유 전라남도 해양생물과장은 “천일염이 식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안전성 등의 문제

제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”며 “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염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친환경 천일염 생산에도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09/06>